

목포근대역사관, 지역대표 관광지로 '인기몰이'

한달반만에 1만5천명 방문

목포 근대역사관(제1관)이 목포 원도심을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3월 1일 개관한 근대역사관에 지금까지 1만5000여명의 방문객들이 찾았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인 옛 목포 일본영사관(국사적 제289호)을 2년동안 리모델링해 지난 3월 1일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갔다.

근대역사관은 1890년대 개항기 목포부터 1950년대 근대 목포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문화·항일운동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 설비 패널과 유물 10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1903년 무안 감리서에 정3품 통정대부 김성규를 무안 감리에 임

명한다는 고종의 '감리 칙명서' 진본을 비롯해 1930년대 일제 토지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들이 사용한 '토지 측량기'진품,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고자 광고했던 '조선농업 이민모집'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됐다.

또한 일제 강점기 부유층이 사용한 측음기와 가스허더, 손금고, 병장고 등 생활용품과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이 강제 노역으로 방공호를 파는 모습을 디오라마(Diorama)로 사실감 있게 재현했다.

이 밖에도 4·8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당시 목포의 상황을 드라마 형식으로 연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근대역사관 뒤편 '문서고'와 '방공호'는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한 후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대동동 옛 일본영사관을 리모델링한 근대역사관(1관).



신안군, 공약이행률평가 대상 수상

신안군이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공약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전문 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처음으로 전국 기초단체 221개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민선 5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이행률을 정밀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안군은 77.27%(전국 평균 66.56%)의 공약 이행률을 보여 공약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군은 최근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버스공영제 전면시행을 비롯해 ▲1004개의 섬을 잇는 국내

최초 역객선 야간운항 ▲14개 전 읍·면에 목욕장 시설을 갖춘 종합 복지회관 확충 ▲새천년 대교·김대중 대교·지도~임자간 연륙교·안좌~자법률전문 민간기구(총재 김대인) 등 연륙·연도교 건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천혜의 해양생태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수산업과 관광산업, 천일염 육성 등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서도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량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함평 농어촌공사 농촌마을 가꾸기 '구슬땀'

손불면 월천리 꽃길 등 조성

한국 농어촌공사 함평지사(지사장 박금수)는 최근 손불면 월천리 해당화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구내 마을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과 나무를 심는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를 추진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마을단위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아직은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700여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금수 지사장은 "지사 직원들이 앞장서서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살기좋은 농촌으로 발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완도 대성병원·진도 한국병원

분만 취약지역 지원병원 선정

완도 대성병원과 진도 한국병원이 분만의료 지원 병원으로 선정됐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은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지역에 출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분만의료 취약지는 지역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걸리는 인구밀도가 30% 이상인 지역이다.

대성병원 등은 국비 등 2억원을 투입, 외래 진료실과 일반 촬영실, 교육 및 상담실 등을 설치하며 초음파, 검진대 등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을 별도로 채용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외래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병원은 안전한 분만을 위해 인근 지역내 분만가능 의료기관 등과 의료 인프라 및 연계, 협력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들 분만의료 취약지 산모는 급격한 출산을 저하의 영향으로 지역출산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산전·산후진찰과 분만을 위해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불편을 겪어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청산도 돌담길 산책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군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돌담길을 걷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8100명이 청산도를 찾아 '하루 방문객'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전북

고창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 준공

5월 정식개관...93석

고창읍 동리국악당 지하

오는 5월 고창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연다.

고창군은 지난 16일 고창읍 읍내리 동리국악당에서 김완주 도지사와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영화관 '동리 시네마'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 후에는 이장호 감독의 신작 '시선' 시사회가 이어졌다.

군은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화된 동리 국악당을 한옥풍 국악전문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했다. 객석은 기존 499석에서 344석으로 조정했고, 무대와 조명·음향·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군은 총사업비 8억5000만 원을 들여 동리 국악당 지하공간을 활용해 좌석 93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연면적 391㎡)을 건립했다.

군은 '작은 영화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 후 5월중 개관해 최신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지역의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문화융성을 뒷받침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삶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화 부과금 면제와 다양한 영화 기획 상영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강수 군수는 "이번 '동리 시네마' 준공으로 문화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던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영화 관람을 위해 도심으로 나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순창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1건당 2000원 연간 10만원

순창군이 지난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북 최초로 지원에 나섰다.

지원액은 직거래 택배발송 1건당 2000원이며, 농가당 연간 10만원 한도로 2000여 농가에 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농산물은 순창군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에 한하며, 제조처를 요하는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

류, 과즙 등 가공농산물은 제외된다.

군은 블루베리와 복분자, 오디, 매실, 밤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활발한 지역 대표 농산물 생산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가격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택배비를 저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달까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아 2014 농가를 선정했다. 상반기 출하 품목에 1023명, 하반기 출하 품목에 99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김호수 부안군수 징역 4년 구형

군청 공무원들의 서열·평점점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주 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관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수로서 지역 공무원제의 근간인 인사제도를 침해하고,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수의 공무원 인사서류를 조작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열·평점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

된 부안군청 전 비서실장 신모(59)씨, 전 행정계장 이모(58)씨, 전 인사담당 직원 배모(46·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공무원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서열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 1년 넘는 재판 중에도 자신을 믿어준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공정한 심정을 호소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단신

남원시 배스 등 외래어종 kg당 5000원 수매

남원시가 21일부터 매주 월요일 구 시청에서 생태계 교란 주범인 배스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외래어종 산란기 이전인 이달부터 관내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어종을 포획, 3.2t을 kg당 5000원씩 수매한다.

수매한 외래어종은 가족축이 또는 퇴비로 재이용될 예정이다. 또한 참다슬기와 참뚱이, 왕종개 등 토종수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어종도 수매할 계획이다. 배스 등 외래어종은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 어종을 타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정읍시의회 193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심의한다. 또한 18일부터 22

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박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개최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MOU 체결

순창군과 전남대학교 산하협력단(친환경농업 연구소)이 지난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저비용 친환경 농업의 실용화 연구에 나섰다.

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사업비 100억원)에 선정된 '순창 친환경농업 연구센터'의 성공적인 사

업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연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시너지 효과와 '순창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핵심연구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선운사 복지재단, 고창 게이트볼장 위탁기관 선정

고창군은 지난 15일 군 재단상향실에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부지내 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사)을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종합사회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노인들의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군 보건소 맞은편에 게이트볼장을 완공했다.

군은 앞으로 선운사 복지재단과 게이트볼장 운영 협약을 체결해 5월부터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귀농하면 즐거워요

남원시 소리연구회 '타울림' 단원들이 최근 남원시 이백면 요천체험관 아리원에서 열린 '수도권 귀농학교'에서 북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